



4면

작은학교 살리기 '온 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음 11월 16일) 제36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오늘부터 심리절차

300표 중 204표가 '찬성'...尹 직무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받아... 180일 내 탄핵 심판 절차 마무리해야
전주 등 전국 곳곳尹 탄핵 촉구 촛불집회... 시민들, 가결에 '환호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16일부터 탄핵에 대한 본격 심리절차에 나선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6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권 의원이 192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최소 23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표결 참여·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엔 참여했으나 표 단속에는 실패했다. 앞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중오·한지아 의원 7명이 입장을 유지했을 경우 5명이 탄핵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구성 요건

인 국헌 문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하고, 국회 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사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16일부터 헌법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에 대한 본격 심리절차에 나선다.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후 6시 15분께 접수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고, 이에 사건번호 2024헌나 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탄핵 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절차는 계속된다.

한편, 전북 전주,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이제는 탄핵 인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향후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집회 주최측은 향후 집회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뒤 본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尹 탄핵 이끌어”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 심판 충실히 임할 것... 헌법재판관 조기 임명”

국민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 우리의 희망, 국민 속에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한 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

을 깊이 새길 것이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

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의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지역,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 여러분 고맙다”고도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식품부, 새만금에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 운영

식량 자급기반 확충·식품원료 안정 공급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식품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헥타르(ha)를 100ha 이상 3개 구역으로 크게 구분해 규모화 영농을 실시한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있는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한다는 구상이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